



# 과도기의 한국 외교

과도기란?

한국이 선택해야 할 외교전략은?

담당교수 : 손 정권

##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국제환경

- ▶국제환경(정세)은 ‘불안정성’을 특징으로 한다
- 20세기: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양극체제
- 21세기:국제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 심화에 따른 다극체제  
→스스로 국가안보를 구축해야 한다!

#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국제환경

\*20세기 한국의 경우, 기본적으로 대립형 대외전략으로 일관해 왔었다.

;대립형 외교전략의 배경이었던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식은 한국의 외교전략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-  
이점에서 한국은 외교적 과도기의 기로에 서있다.

●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

-미국:여전히 영향력을 지닌 패권국

-중국:새롭게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지닌 만큼 급격하게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은 적다

-러시아:중국과의 동맹을 생각할 수 있지만, 실익이 없는 상황

-일본: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방파제로서 미국을 선택

# 외교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

▪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중견국가

;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방향설정이 필요

-한국의 국력과 주변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

-외교전략이란 무엇보다 냉정하고 냉엄한 국제정치  
의 현실을 기본으로 설정해야 한다!!

\*완충국의 외교전략-중립국화, 편승정책, 제3국과  
의 동맹전략

“국가는 국력증강을 위해 최대한 힘써야 한다. 이것  
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교훈이다”

⇒시대상을 반영한 외교전략의 수립이 필요:조류외교

#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한국의 대일외교

## ◎가깝기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

- ▶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중견국가라는 공통점과 근린국이라는 점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
- ▶ 일본의 '양손외교'의 전개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!
- ▶ 한중일 3국의 대승적 윈윈전략을 한국이 주도해야 함(역지사지 易地思之/구동존이 求同存異)
- ▶ '오늘날의 일본' '있는 그대로의 일본'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

#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한국의 대일외교

## ◎독도, 꺼지지 않는 불씨

### ▶ 독도문제의 접근법

; ‘역사적’ 측면과 ‘국제법적’ 측면

— 포츠담선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검증이 필요하다(p105~이하 참조)

\*한국전쟁은 일본으로 하여금 ‘미일동맹’의 대등한 관계를 이루게 만들었다

### ▶ 독도사수를 위한 ‘정공법’의 논리개발이 필요함(조약의 해석이 선결되어야)

#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한국의 대일외교

## ◎대일 외교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

- ▶ 21세기는 ‘보통사람들’이 세계화의 주역  
;보통사람들의 긍정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상상력의 발휘가 중요
  - 한국의 독도전략은, ‘독도관련자료들을 시종일관 한국측 위주로만 제시’  
(p109이하 참조)
  - \*한일관계(독도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)는 일본의 보통사람들(일본인)의 이성과 지성을 신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
    - 역사는 각색할 수는 있어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
- ▶ 냉정한 대처가 필요: ‘농심’을 갖출 필요가...

# 재인식이 필요한 한국의 대중 외교

## ◎새로운 중국관의 정립

- ▶ 동북아의 외교는 미국, 중국, 일본에 의해 주도  
;중국은 와신상담형 외교에서 주도적 강대국형 외교전략으로 전환-국제문제에 적극 관여함
- 중국의 약진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힘은 강대함;한미동맹의 유지가 필요
- 현실을 직시: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이 필요
-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북한사회의 변화와 국제사회로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함
- 중국이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더욱 투명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



# 재인식이 필요한 한국의 대중 외교

- ▶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‘우리만의 중국관’  
‘한국만의 중국관’의 정립이 필요

## ◎ 폭넓은 안목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

- ▶ 한미동맹의 특징: 가상의 적에 대한 공통의 위협을 전제로 함-전환이 필요
- ▶ 국익의 공유가 필수적-국익에 대한 재고가 필요
- ▶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파트너십(동반자)으로 전환
- ▶ 수단은 목적을 위해 선택/수단유지를 위해 목적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

# 21세기 한국형 조류외교

- ▶ 무정부적인 국제사회-그러나 그 양태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
- ▶ 외교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국제정치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
- ▶ 내치에서의 실패는 선거의 패배로 귀결되지만 외치에서의 실수는 국가의 파국을 초래(존 F 케네디)

## ◎힘과 크기에서 균형을 피하는 조류외교

- ▶ 새의 날개처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외교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(좌익-중국, 러시아/우익-일본, 미국)
- ▶ 오늘을 직시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게 된다(시대의 흐름과 시대적 대세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)